

住血吸虫과 鞭毛虫病

주혈흡충
편모충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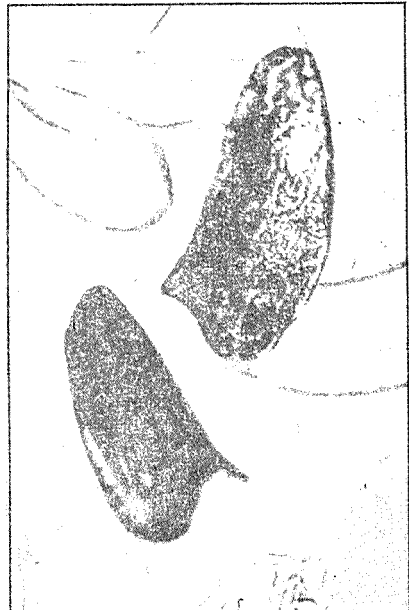


중간숙주(中間宿主) 달팽이(上)

「멘손」주혈흡충의 애기벌레를 키우는 달팽이. 사진속의 달팽이는 남미(南美)와 서인도제도(西印度諸島)에서 살고 있는 「오스도로피스·구라부라더스」란 이름을 가진 달팽이다. 애기벌레는 이 달팽이속에서 흑크모양의 어미벌레가 될때까지 산다.

사람에게 기생하는 알(左)

기생충 「멘손」주혈흡충(住血吸虫)의 알은 사람의 배설물속에 끼어 버려지면 물속에서 부화하여 애기벌레가 된다. 이 애기벌레가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살기 위해 달팽이를 찾는다. 만약 8시간이내에 달팽이를 찾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온대지방에 사는 수역의 인류는 주혈흡충(住血吸虫)으로 고민하고 있다.

조그만 벌레인 이 기생충은 여러 내장(內臟)을 침습, 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이 병은 하수물로 오염된 밭이나 개천, 연못같은데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잘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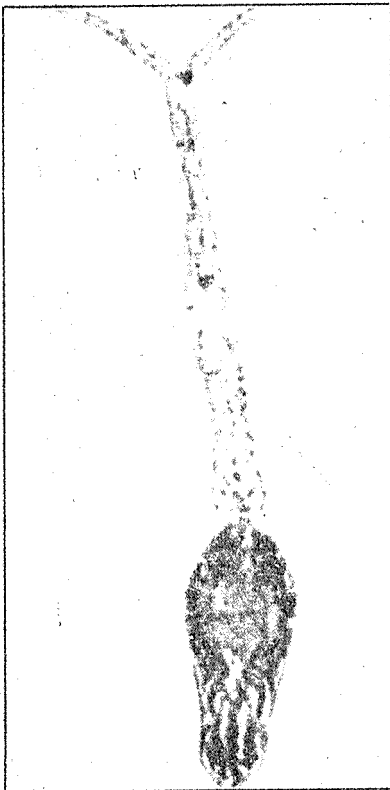
이 기생충은 물에서 부화하여 달팽이를 중간숙주(宿主)로 하여 자란다.



인체내에 잠입한 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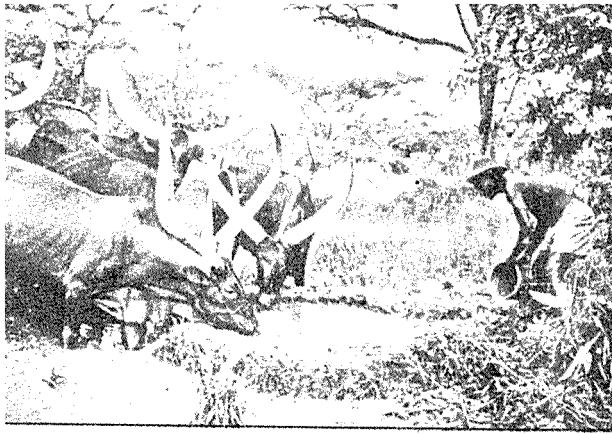
어미벌레가 떨어져 들고 있는 간장혈관의 단면도. 숫것이 칼질처럼 암컷을 둘러싸고 있다. 암컷은 장혈관으로 이동, 거기서 알을 낳는다.

주혈흡충은 농양(膿瘍)을 일으키기도 하며, 내장출혈을 일으키는등 가진 못된 짓을 다한다.



주혈흡충(住血吸虫)의 정체

달팽이를 떠난 어미벌레.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피부를 뚫고 혈관내로 들어온다. 사람을 못만나면 죽을때까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운명이 된다. 크기는 길이 2.5센치.



속칭 「잠자는 병」이란 이름이 붙은 아프리카편모충병(鞭毛虫病)도 무서운 기생충의 하나. 이 기생충은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을 괴롭히는 이 지방 풍토병이다. 매개체는 파리. 그는



병원충(病原虫)의 저장고(上)

물을 마시고 있는 우간다의 소. 이 소가 편모충의 저장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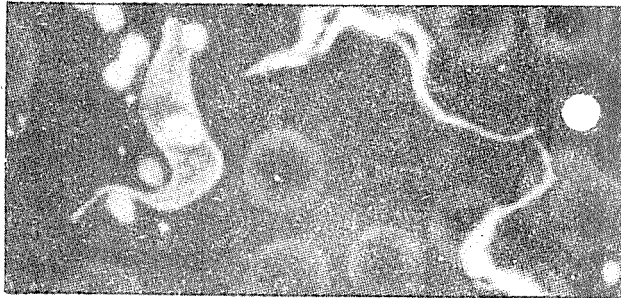
해를 안받는 중간숙주(上)

야생의 순진하고 착한 영양(羚羊)이 무서운 편모충의 중간숙주다.



혈액중의 기생충

혈액속에 들어간 긴꼬리를 가진 기생충 「트리파노소마·간비엔스」, 「잠자는 병」의 원인이 되는 두종류의 편모충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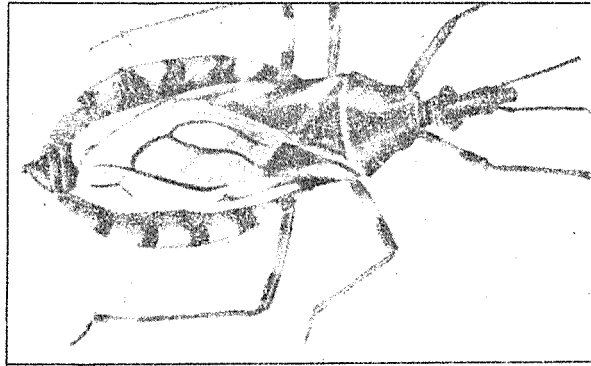


확대해본 매개자 파리

편모충을 옮겨주는 파리의 모습. 이 파리의 몸속에서 편모충이 번식하고, 타액선 속에서 대기한다.

을 찾아 더운 정글지대
에서 살고 있다.

이병은 해마다 수백명
의 생명을 빼앗고 수천
명을 바보로 만든다. 증
세로는 오한, 발열, 구
토에서 시작, 임파선비
대를 가져온다.



부라질의 「키스하는 벌레」 (上)

얼굴의 부드러운 부분을 골라 물어뜯는 버릇을 가
진 이 벌레를 속칭 「키스하는 벌레」라고 부른다. 이
벌레는 편모충병의 일종인 「자카스」병의 병독을 사
람에게 전파한다.

적혈구속의 기생충 (下)

현미경으로 본 「자카스」병
의 기생충. 적혈구 세포속에서
파리를 틀고 번식하다가
나중에는 심장에까지 뒤편든
다. 때로는 임신중의 모체를
통해 태아에 까지 감염되기도
한다.

중간숙주 검정쥐 (下)

정글속에서 모이를 구하거나
인디언의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는 검정쥐는 「키스하는 벌레」
의 중간숙주의 하나이다.

